

정읍시, 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2040 정읍 공업지역 기본계획 확정...신태인 우령·연정리 등 4개소 지역별 맞춤 정비계획 수립...토지이용 효율화로 사업 환경 기반 조성

정읍시가 지역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40년 정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는 신태인 우령리·연정리, 태인면 오봉리, 입암면 천원리 등 4개소 총 43만3233㎡ 규모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해당 공업지역을 산업지원기반이 열악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산업정비형'으로 관리유형을 구분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또 공업지역별 건축물 밀도 계획, 지원기반시설 확충, 환경관리 방향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도 포함했다. '2040 정읍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보고서는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각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토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해 정읍 공업지역에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환경을 수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어진화사’ 석지 채용신 선생 시대정신 재조명

정읍시립박물관, 8월3일까지 테마전 최익현·최치원·김기술 초상 등

정읍지역의 대표 서화가인 석지 채용신(1850~1941) 선생의 시대정신과 작품을 재조명하는 테마 전시회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정읍시는 조선 말기 어진화사로 명성을 떨친 채용신 선생의 눈을 통해 정읍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테마전이 오는 8월3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영조 대 의금부도사를 지낸 김도연(1684~1735) 선생의 후손인 김준기 선생이 정읍시에 기탁한 '김도연 초상'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김도연 초상은 1918년 채용신 선생이 그린 초상화다. 박물관 1층에서는 무성서원의 제향 인물과 태인의 병 활동을 이끈 면암 최익현 선생 관련 작품이 중시를 이룬다. 보물로 지정된 '최익현 초상'과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정양 최익현 압송도'를 비롯해 무성서원의 대표 제향인물인 '최치원 초상', 병오장의 관련 인물 '김기술 초상', '김직술 초상'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또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 속 건축물과 관련된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보물)', '임계기사(전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오는 8월3일까지 열리는 '석지 채용신 테마전'에 전시되는 채용신 선생의 초상작품들. 왼쪽부터 최익현초상(보물)과 박만환초상, 최치원초상, 이세헌초상.

북자지도 유형문화유산)' 등 정읍의 대표 유물도 함께 전시돼 채용신 선생의 그림과 함께 풍부한 역사적 맥락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2층 기획전시실은 채용신 선생과 정읍의 깊은 인연을 엿볼 수 있도록 꾸몄다. 1910년대부터 정읍과 관계를 맺었던 선비들의 초상으로 정읍 영주정사 설립자인 '박만환 초상'과 함께 안재호, 김태흠, 이세헌, 김도연, 김환규, 정치방, 김경구 등의 초상이 공개된다. 특히 신태인 욕리에서 '채석강도화소' 운영을 도왔던 황봉규·주락재 부부의 초상도 포함돼 채용신과 지역사회의 끈끈했던 유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립박물관은 전시와 연계해 전문가 초청 강연과 채용신 선생이 그린 '태평연도' 속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운영 등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전시는 조선의 어진화사로 알려진 석지 채용신 선생의 작품을 통해 인물의 섬세한 감정과 기백, 그리고 시대의 정신을 들여다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호평

321대에 영상기록장치 등 보급...“운행여건 향상” 긍정 반응

남원시가 연초 실시한 택시 영상기록장치 및 뒷좌석 카드단말기 지원 사업이 시민은 물론 운전기사들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약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개인택시 242대와 법인택시 79대 등 총 321대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와 뒷좌석 카드단말기 보급 사

업을 추진했다. 블랙박스 설치 지원은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승객과의 마찰 등의 상황에서 정확한 영상 확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은 택시 이용객의 결제 편의를 높이고 기사와 승객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기사와 승객들은 '혹시 모를 사고에 있어 공정한 사후처리가 가능해 기사들의 운행여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접촉 없이 결제가 되니 너무 좋다', '뒷좌석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정착되면 승객과 기사 모두가 편리할 것 같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의회, 공동주택 새 관리모델 모색

정책연구 포럼, 간담회...주거환경·민원 등 개선 방안 논의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 서항경(가운데) 대표의원과 정상철(왼쪽), 오승현의원이 지난 28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제공>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이 지난 28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읍시 공동주택 정책 연구 포럼은 서항경 대표의원과 정상철, 오승현 의원이 참여했으며 11월까지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파악해 주거환경, 민원 등의 각종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으며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서항경 대표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산 무로 '김치 3종 개발' 착수

소비자 맞춤...비건 시장 대응 채식주의 김치 양념 개발 진행도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의 대표 농산물인 무를 원료로 한 소비자 맞춤형 김치 3종류를 개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고창산 무를 활용에 과학적인 발효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 설계를 통해 시장성을 갖춘 고창을 대표하는 무김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비건 제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젓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로 대체한 채식주의 김치 양념 개발

도 함께 진행한다. 향토에서 자란 고창산 무는 조직감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김치 가공에 최적화된 원료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고창군이 조성 중인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와 연계해 김치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고창산 무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가공산업 연계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김치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갯벌 탐조캠프 참가자 모집

31일~6월 1일...철새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창군은 오는 31일과 6월1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고창갯벌 탐조캠프'를 개최한다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열리게 된 탐조캠프는 '갯벌의 숨결을 따라서'란 주제로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에서의 철새 탐조활동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갯벌 섬 탐험'과 '갯벌의 소리를 찾

아서'를 주제로 20개 팀, 70여명이 참여해 갯벌 아트워크, 저서생물 관찰, 갯벌 소리 채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오리엔테이션과 탐조이론 교육을 받은 후 고창갯벌 탐조활동을 하며 갯벌의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또 '습탄것들의 숨결을 따라서'란 워크숍을 통해 고창갯벌의 생물다양성에 대해 배우는 기회도 주어진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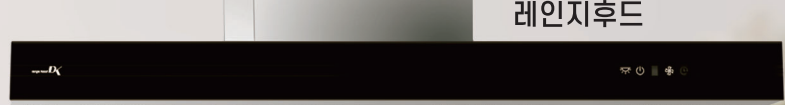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